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노태우사건과 “힘의 지배논리”

장호순(운영위원/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연구원)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노태우의 부정축재 사실이 집중 보도되고 있다. 한결같이 노태우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감정”이 조성되었다고 일제히 떠돌고 있다. 이들은 “국민감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도 하고 시민의 반응을 직접 인터뷰하는가 하면 심지어 전국연합의 시위현장까지 크게 보도하고 있다. 물론 노태우의 엄청난 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우리 언론이 노태우에게 일제히 등을 돌렸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태우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 그에게 퍼리를 조아리고 아침을 하며 그의 비리를 묵과 해주던 그들이 갑자기 그에게 돌팔매를 던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갑자기 돌변한 언론의 보도태도와 언론에 의해 부추겨진 “국민감정”은 부정축재나 정경유착과 같은 사회적 병리를 지속시키고 치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우리사회의 “힘의 지배논리”를 실감시켰다. 우리역사에서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군사정권시절 그리고 소위 문민정부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비리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모른척 하거나, 노태우의 말대로 관행으로 여겨졌다. 노태우가 줄지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것은 이제 우리사회가 그런 그릇된 관행을 폐기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노태우가 더이상 자신의 부패를 감출 힘을 상실했기 때문일 뿐이다.

한국사회의 operating system은 매우 간단하게 짜여 있다. 우리는 힘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힘이 센자가 약

한 자를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심지어 미덕으로까지 여겨지는 사회이다. 가정에서 건 학교에서 건 사회에서 건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신념하에 누구나 힘키우기, 세불리기에 몰두한다. 따라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란 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규칙에 상관없이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이란 것은 아예 무시되고 법이란 것도 힘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집행된다. 이처럼 힘의 지배가 보편화된 한국에서 인권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인권운동을 하는 얼마 안되는 사람들은 세상변화에 적응할 줄 모르는 우둔하고 고집센 시대착오적 사람들로 치부된다. 과거 인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대거 시민운동으로 거기서 다시 정치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힘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노태우의 부정축재문제가 불거진 것은 힘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태우가 힘을 잃었다는 것을 뜻할 뿐,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혹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다. 노태우의 부정축재 문제는 권력자들의 힘키우기에 사용되고 있을 뿐이며 여기에 언론이 동원되어 소위 “국민감정”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노태우가 감옥에 간다면 그것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힘으로 지배하는 사회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노태우 사건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지언정 결코 참회와 변혁의 역사적 계기는 되지 못할 것이다. “힘의 지배논리”가 사라질 때에야 비로소 부정부태도 인권침해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사람사랑」에서는 사랑방을 이끌고 계신 운영위원님들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의 열매를 가꾸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업보고

(10월 세째주~10월 마지막주)

□ 인권하루소식 500호기념·인권정보자료실

기금마련전 중간점검 □

- 지난 10월20일 열렸던 19차 운영위에서는 기금마련전 재정수입에 대한 중간정리를 갖고 향후 지출에 대한 개략적인 안을 확정했습니다.

- 현재 총 수입 1,680여 만원, 총지출 860만원, 순이익 820만원이며, 추가 예상수금 900만원, 서화판매수익 900만원으로 총수입은 2,400여만원으로 예상됩니다.

- 이 중 1,500만원은 정보자료실에 비축하여 자료실안정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00여만원은 사무국 부채 및 국보법 국제심포지움 분담금납부등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권정보자료실 P.C 통신 서어비스

조금 늦추어져 □

- 11월 1일부터 P.C 통신상에 인권하루소식의 서어비스로 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정보서어비스가 공동합작한 통신회사의 사정으로 약 1달여간 늦추어졌습니다.

- 통신 서어비스가 시작되면 자세한 이용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5년 하반기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 95년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중 법사위, 내무위, 외무통일위, 교육위, 보건복지위의 정부 제출 자료가 복사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목록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정보자료실로 연락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자료실 별도의 논의체계를 갖기로 □

- 정보자료실 사업의 집중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논의체계를 갖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 책임 운영위원으로는 백승현 운영위 간사님이 담당키로 하였으며, 자료실 사무국원 2인, 정보자료실사업에 관심이 있는 조용환 변호사, 김거성, 염규홍 자문위원, 그리고 1~2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 인권교육실 류은숙씨 엠네스티 영국지부 인권교육부서에 6개월간 연수기로 함 □

- 그간 인권교육실장으로 활동해온 류은숙씨가 올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국제사면위원회 영국지부의 인권교육 담당관 덴 존스씨의 소개로 인턴으로 6개월간 연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기간 동안 그간 엠네스티에서 개발되어 세계각국에서 실천해 오던 인권 교육의 이론과 실습을 습득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에서의 인권교육 개발에 활용될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 UN 아동권회의 한국보고서 심사 실무회의에 “아동권연대회의” 민간대표단 파견 □

- 이번 11월 22일에 제네바 유엔 인권센터에서 한국정부가 가입한 “아동권리조약”의 이행 조치에 따른 정부보고서 심사를 위한 실무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내년 1월에 열릴 본심사를 위한 정부보고서, 민간단체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질문을 요약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 작년초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이 제안하여 여러 아동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조직된 “아동·청소년 권리 연대회의”는 민간단체 보고서를 21개단체 합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번 대표단은 그간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이기범 숙명여대 교수, 노혜련 숭실대 교수님과 간사를 맡아온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씨가 참가하게 됩니다.

□ 장기복역양심수 옥중서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 그간 <인권운동 사랑방>이 여러해동안 모아서 소장하고 있던 장기수선생님들의 한글, 한문 서예와 그림을 사진 도록으로 만들어 꼭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작품들은 우리에게 잘알려진 이구영, 신영복, 오병철, 이명직선생등이 옥중에서 쓴 매우 의미있는 작품들이 다수 있습니다.

- 관심있는 운영·자문위원님들은 주변의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하루소식 모니터팀 발대모임 가져 □

- 인권하루소식 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권하루소식 독자중에 이를 매일 정독하고 의견을 보내줄 모니터 팀을 만들어 가동중입니다.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 안내>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 일시 : 1995년 11월 22일 (수) - 24(금) / ●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서울
- 주최 : 9개시민, 종교, 사회단체 ● 주관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전화: 522-7284)

< 기조발제 1 > :

- * 주제 :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그리고 민간인권단체(NGO)의 역할"
- * 연설자 : Mr. Ross Daniels, 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Session 1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아태지역 국가안보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 * 발제자: 1. 오재식,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
2. Kinhide Mushakoji 교수, HURIGHTS 의장, 일본
- * 토론자 1. 서 승, 전 양심수, 일본
2. Eric Sottas, SOS Torture, 제네바
3. Aida Jean Manipon, 아시아교회협의회(CCA) 국제위원회, 홍콩

Session 2: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 발제자 1. Margaret Blanchard 교수, 미국
2. Sandra Coliver 변호사, Article 19, 영국
- * 토론자 1. James D. Ross, Human Rights Task Force on Cambodia, 캄보디아
2. 조용환 변호사, 민변, 한국
3. James Silk,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 미국

< 기조발제 2 >

- * 주제 : "비상사태/국가안보하에서의 인권보호"
- * 연설자 : Leandro Despouy 교수, 유엔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특별보고관

Session 3: 개발독재와 인권

- * 발제자 1. 한국과 아시아 - 박홍규 영남대 교수, 민주법연, 한국
2. 필리핀 - Rene Sarmiento, 필리핀인권단체협의회(PAHR), 필리핀
3. 말레이시아 - Sivarasa Rasiah, SUARAM, 말레이시아
4. 태국 - Jaran Kosananund 교수, Forum Asia, 태국
5. 대만 - 임서량, 대만노동인권협회, 대만
- * 토론자 1. Robert Reid, 아태노동자연대회의(APWSL), 뉴질랜드
2. Tarik Abdel-Monem, 아시아인권교육센터(ARRC), 태국

Session 4 : 나라별 사례연구

- * 발표자 1. 남부아시아 - Babioo S. Loitongbam, 남부아시아인권자료정보센터(SAHRDC) 인도
2. 동티모르/인도네시아 - Akihisa Matsuno 교수
3. 일본 - Mizno 교수, 일본
4. 대만 - Hong Jang TSAI, 대만인권협회(TAHR)

Session 5: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 아태지역 민간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략

- * 발제자 1. Cecilia E. Jimenez, PAHRA, 필리핀
2. 박원순 변호사, 민변/참여연대 사무처장, 한국
- * 토론자 1. 국제인권봉사회 (ISHR), 제네바
2. Boonthan T. Verawongse, 발전에 대한 아시아문화포럼(ACFOD), 태국
3. Basil Fernando,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홍콩
4. Ravi Nair, 남부아시아인권자료정보센터(SAHRDC) 소장
5. 김동훈 교수, HURIGHTS, 일본

자료소식

이번에는 사회개발과 관련 사회개발정상회의(WSSD) 유엔 문서, 한국 사회발전보고서, NGO 포럼 자료집을 실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자료실에 연락하면 복사 또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REPORT OF THE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Copenhagen, 6-12 March 1995) / UN지음/ 131쪽/ 자료집/ 93.3/ EN

: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주요 보고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코펜하겐 선언문, 행동강령, 채택된 의제, 주요 위원회 보고서 등.

□ 한국 사회발전 보고서 - 12개 민간단체의 종합 보고서 - /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 지음/ 30쪽/ 자료집/ 95.2/ KO, EN

: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이 사회발전정상회의의 민간대회(NGO FORUM)를 준비하면서 만든 보고서이다. 한국에서 사회개발의 역사, 정책과 한국의 빈곤, 노동, 여성, 주거, 복지,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경제개발모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임하는 한국포럼의 입장/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 지음/ 5쪽/ 아티클/ 95.2/ KO

: 한국정부와 사회개발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의 전략을 담고 있다. 복지에산중액, 노동법 개정등 한국정부에 대한 제안사항과 민중의 자결권, 외채문제, 공식개발원조등 사회발전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입장을 9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 한국형 경제성장 : 제3세계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는가? - 한국의 경제 및 사회·정치적 발전수준과 복지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 - / 이희선 지음/ 5쪽/ 아티클/ 95.2/ KO

: 수출에만 의존해온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사회·정치적 병리현상을 낳았고 복지를 후퇴시

켰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은 다양한 사회 세력의 민주적 참여와 경제면에서 복지라는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능률성을 상호보완시키는 사회통합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다.

□ Canada's Social Security Reform(캐나다의 사회안보 개혁)/ 23쪽/ 아티클/ 95.3/ EN

: UN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삶의 질 1위인 캐나다의 사회정책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사회안보시스템 하에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혁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 공식개발원조, 사회통합,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 PARTENRSHIP FOR NEW SOCIAL DEVELOPMENT(새로운 사회개발을 위한 파트너쉽)/ Kim Moller & Erik Rasmussen 지음/ 73쪽/ 자료집/ 95.3/ EN

: 덴마크 정부가 유럽공동체를 겨냥해 제안한 새로운 사회개발전략을 다루고 있다. 서구 유럽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인간중심, 복지, 지구적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SUSTAINABLE ENERGY AND SOCIAL DEVELOPMENT(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사회개발) - A COMMON AGENDA

/ Rrne Karottki 지음/ 6쪽/ 아티클/ 95.3/ EN
: 에너지와 개발포럼(Form for Energy and Development)에서 발표된 자료로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디아 사례 등이 있다.

□ Industry and Social Development(산업화와 사회개발)/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지음/ 7쪽/ 아티클/ 95.3/ EN

: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각국의 프로젝트가 수록되어 있다.

□ Asia Worksho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NGO's Strategies Social Development and Solidarity -/참여연대등 지음/ 89쪽/아티클/ 95.7/ KO,EN

: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성장 위주였던 사회개발 전략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인간을 중심에 놓는 개발전략-인간안보, 민중의 참여, 환경친화력-의 전환을 기술하고 있다.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

정보통신을 통한 인권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며

박찬운(운영위원, 변호사)

이제 얼마 있으면 이땅에 인권운동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인권정보가 우리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전달된다. 통신을 통하여 우리는 인권하루소식을 읽을 수 있고, 특정인권문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키워드만 입력하면 거기에 관한 자료가 순식간에 찾아져 이용자의 책상에 제공될 것이다. 인권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통신을 통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전문가들의 신속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얼마나 환상적인 인권운동인가. 그러한 날이 이제 우리 눈 앞에 다가왔다.

생각하면 우리의 인권운동의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없을 터인데도 우리의 인권운동의 방법은 과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리치고 거리에 나가는 일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러한 일련의 사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터전 위에 다음의 사태를 준비하는 데에는 너무나 소홀했다. 아니 엄두도 못냈다.

그러니 인권운동은 조금은 무모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일이 없지 않았다. 어느 단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인권운동가와 이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우리들의 부족한 힘마저도 분산되어 있어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 발생해도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이 2년전 1일팩스 신문을 내었다. 그것은 우리 인권운동사에서 하나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그 착상의 기발함은 인권선진국에서도 일찌기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임에도 그것을 우리는 해내고 말았다.

여기에 더하여 사랑방은 지금 컴퓨터통신에 하루소식을 보내고 이것과 사랑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권정보의 2차 가공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는 획기적 프로그램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만일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의 인권운동은 필시 새로운 장을 열고 말 것이다. 인권침해의 사례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순식간에 수집될 것이고 그것은 손쉽게 국내외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알려질 것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도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의 전문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시골의 경찰서에서도 우리국민들은 통신을 통해서 본 정보로 지금 보다 훨씬 세련된 자기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인권운동이 이땅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정보통신의 혁명과 함께 인권운동도 과학과의 싸움이 되어 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정보에의 신속한 접근이야말로 인권운동의 선결과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가올 통신서비스에 커다란 기대를 걸어 본다.

사람사랑 머릿글은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사랑방 성원과 함께 고민할 일과 주장을 보내주시면 우선적으로 신겠습니다.

사업보고

(11월 첫째주~11월 둘째주)

□ 서준식 대표 내년 1월 귀국 예정 □

- 서준식 대표의 귀국이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서대표는 애초 12월중에 귀국, 여권연장을 하고 내년 콜롬비아 대학의 인권연수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가 5월말경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대학 일정이 취소되게 되어 오는 1월10일경 온 가족과 함께 귀국하기로 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인권·환경운동가 켄사르 위아등 9명 사형집행에 대한 항의시위 전개 □

- 지난 11월 10일 나이지리아 아바차 독재정권은 국제적인 구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켄 사르 위아를 비롯한 9명의 인권운동가를 사형시키고 말았습니다.

- 켄 사르위아씨는 독재정권과 국제독점재벌인 "셸"사에 맞서 자결권과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지난한 투쟁을 벌여온 바 있습니다.

- 이들의 사형집행을 접한 국내 인권·환경·문인단체들인 인권운동사랑방, 환경운동연합, 민족문화작가회의등 7개 단체는 한남동 나이지리아 대사관 앞에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나이지리아 독재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 아울러 한국의 외무부를 방문하여 강력한 외교적 항의로 대사를 즉각 소환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하였습니다.

□ 자료실 기획모임 구성 통신 서비스는 늦어져 □

- 자료실 기획 모임이 구성되어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는 백승현, 장호순 운영위원, 조용환 변호사, 김거성, 염규홍 자문위원, 강기훈 자료실장, 최은아 자료실 간사가 참가합니다.

- 이 모임은 매월 한차례씩의 정기회의와 시급한 일일 발생할 때는 임시회의를 열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지

난 6일 열린 회의에서는 자료실의 준비과정에 대한 보고와 가장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통신 서비스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토의를 했습니다.

- 이 결과 현재까지 진행한 (주) 화엄정보와의 통신서비스 계약서 항목의 문제들이 검토되어, 가급적이면 천리안이나 하이텔과 직접 연결되는 컴퓨터 통신망을 개설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화엄과의 사업추진은 일단 유보하고, 천리안과 하이텔 쪽과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서비스를 실시하려던 계획이 다소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 또한, 자료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10월 주점을 통해 확보된 재정 중 1천만원을 적립키로 하였고, 자료구입비로 5백만원을 별도로 적립하기로 하였습니다.

□ 류은숙 간사 출국 □

- 류은숙 인권교육실장이 18일 출국합니다. 류실장은 제네바에서 열리는 아동권 정부보고서 사전심의과정에 어린이청소년권리 연대회의의 이기범, 노혜련 교수등과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또, 이일을 마친 직후 영국으로 건너가 약 6개월간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엠네스티 덴존스씨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 류실장이 인권교육에 관한 충부한 정보를 갖고 귀국하여 인권운동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함께 격려합시다. 류실장이 영국에 가 있는 동안 있을 집의 전화는 41-22-798-9161입니다.

□ 인권하루소식 인권상식과 컬럼을 말아줄 운영위원, 자문위원을 찾습니다□

- 인권하루소식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컬럼란과 인권상식란을 신설해 운용하려고 합니다. 컬럼은 원고지 5매에서 7매 분량으로 1주 1회 실을 계획이며, 인권상식은 매주 1회 기본적인 인권용어와 개념 중심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 게재할 이란에 운영위원, 자문위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가를 바랍니다.

- 곧 인권하루소식에서 이 두란을 맡아줄 분들을 교섭할 것입니다.

□ 국제심포지엄 준비로 분주 □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제목의 국제심포지엄이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국제적 기준으로 재조명하게 됩니다.

-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도 다수 참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봉하는 안내지를 참고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 기금마련전 재정 보고문제 □

- 지난 10월14일 가졌던 기금마련전 정리가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작업 중이나, 바쁜 일정으로 다음 호에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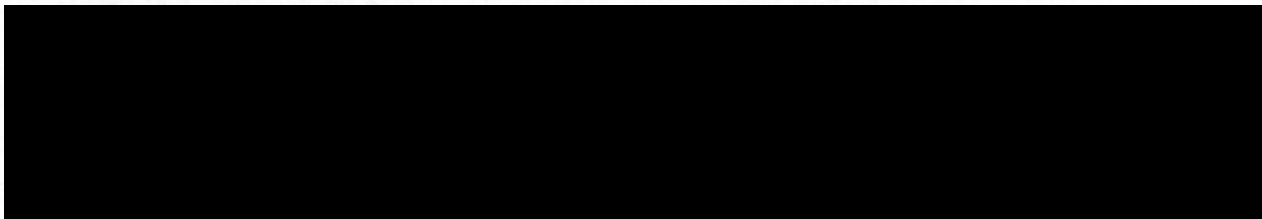
10월 재정보고

* 9월 이월금 - 1,777,518

수 입		지 출	
하루소식구독료	2,651,380	활동비	3,660,000
자문,운영위원회비	2,350,000	통신요금	1,547,070
후원금	640,000	사업비	4,459,900
특별기금(주점일부)	6,300,000	사무비	292,800
집세분담	600,000	집세	376,870
자료수익	388,712	우편요금	367,190
인권교육	85,000	식대	396,050
기 타	37,947	자료구입	287,069
		잡비	45,550
		차입금 상환	2,500,000
계	13,053,039원	계	13,932,499 원

* 잔액 -2,656,978 원

<9월 운영위원,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 회비를 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회비는 인권운동사랑방 운동을 위해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료소식

이번에는 95년 하반기 정기 국회의 국정감사 중 제출된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목록을 실습니다. 내무위, 외무통일위, 교육위, 보건복지위의 자료들을 다음호에도 계속 실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자료실에 연락하면 복사 또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재소자 재범방지 교육실태 및 교정행정 개선 실적 6쪽
- ◎ 재소자 폭행사고 및 집단행동 사례 발생 현황 4쪽
- ◎ 95.9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 재소자 현황(교도소별 미결, 기결, 죄명별, 형기별 구분) 1쪽
- ◎ 전국 교도소별 교정 공무원 복무 현황 2쪽
- ◎ 폭행, 상해 등의 사건 내역과 간단한 사건 개요 및 처리 내역 1쪽
- ◎ 재소자 수용실태와 관련하여 6쪽
- ◎ 교도소내 범죄사건과 관련 1쪽
1>사건내용별 처리 결과/2>사건중 사망, 소란,난동 사건의 조사보고서 사본/3>가해자등 교도관 현황과 처리결과
- ◎ 94.1-95.8 교도소내 사망 사건 현황 6쪽
범죄자 재범방지대책 10쪽
- ◎ 재소자 수용인원 현황(95.8.31 현재) 1쪽
- ◎ 교도소내 의료시설 및 의사 등 의료원 현황 3쪽
- ◎ 재소자 징계(징벌) 현황 1쪽
- ◎ 95 기관별 징벌집행 유형별 현황 1쪽
- ◎ 각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사 및 의료요원 배치현황 8쪽
- ◎ 년도별 영장청구 및 기각
94/95 현황 2쪽
- ◎ 영장기각 사유별 현황 94/95 1쪽
- ◎ 94.1-95.9년도별 패소현황 패소사유 3쪽
- ◎ 구속,불기속 기소한 사건중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현황 2쪽
- ◎ 긴급구속의 죄명별 현황과 긴급구속후 48시간내에 영장 발부를 받지못한 사건 현황과 사유 2쪽

- ◎ 최근 1년간 영장청구 기각 현황 및 사유 4쪽
- ◎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의 보호관리 현황(국적,사유별) 1쪽
- ◎ 한국내 거주외국인 현황 및 불법체류자 현황 1쪽
- ◎ 외국인보호소 운영 현황 2쪽
- ◎ 사형집행내역 3쪽
- ◎ 최근 3년간 구속된 공안사범 현황 2쪽
- ◎ 문민정부 출범후 년도별 공안사범 현황 58쪽
- ◎ 국가배상 내역 및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권 행사 현황 1쪽
- ◎ 93-95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과 현황 및 처리 5쪽
- ◎ 최근 1년간 경찰, 안기부, 기무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폭행·감금·고문등으로 고발된 사건수와 이중 기소된 건수, 공소권없는 건수, 현재 수사중인 건수 1쪽
- ◎ 93년이후 각종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사망 및 부상자 내역 2쪽
-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보장 방안 37쪽
- ◎ 경찰관 1인당 인구부담 비교 1쪽
- ◎ 중요 보안사범 검거처리 현황 1쪽
- ◎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및 처리현황 1쪽
- ◎ 안기부송치 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2쪽
- ◎ 경찰청 대공분실 송치 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5쪽
- ◎ 최근 1년간 항고 및 재항고, 기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수사재기 명령된 사건 현황 4쪽
- ◎ 미국인 범죄 현황 및 처리결과 1쪽
- ◎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비율 2쪽
- ◎ 최근 3년간 미군범죄 현황 3쪽
- ◎ 전관예우사건 배당 실적 2쪽
- ◎ 최근 2년간 구속영장 발부 신청의 지원별 건수와 기각 건수 5쪽
- ◎ 법조인 1인당 인구비의 주요 국가 비교 1쪽
- ◎ 최근 2년간 법원별 판사1인당 본안 판결 건수 1쪽
- ◎ 94.9-95.9 현재 법무부에 접수된인권침해 사건에대해 수리한 사건부 사본1부 및 조사 사건에 대한 처리내용 3쪽
- ◎ 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및 대책 3쪽
- ◎ 93-95.8까지 화염병 등 폭력시위발생 현황 및 최루탄 사용 현황 2쪽